

법체계 재정비하고 단속기관 일원화 시급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하〉 보험사기 근본대책 없나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방병원이 밀집해 있으며 '보험범죄의 온상'으로 꼽힌다.

경찰은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 2016년부터 대대적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쳤지만 아직도 보험사기는 계속 진행형이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험범죄 관련 검거자수는 지난 2016년 498명(350건), 2017년 1289명(370건), 2018년 1133명(464건) 등으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이다.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마련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광주 '보험범죄 온상' 오명 벗기 대대적 단속 불구 근절 안돼
갈수록 조직·지능화 하는 범죄 수법 대응 위해 인력 보강 필요

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보험금 사기금액이 많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광주경찰은 강화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토대로 보험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심각하게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관계 기관들(광주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보험사 특별조사팀 등)과 협업에 나섰다. 2017년 4월 18개 팀 62명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전담팀을 조직해 보험범죄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일부 한방병원, 사무장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년 동안 총 834건의 보험

사기 범죄에 2457명(구속 35명)을 검거하고, 63개 병원(사무장병원 23개)을 단속했지만 보험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2개월 동안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보험사기는 107건(172명)이며, 병원도 3곳(사무장병원 1개)이나 단속됐으며, 적발금액도 총 3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단속된 보험사기 범죄(116건, 188명 검거, 적발금액 24억)와 비슷한 수준이다.

날로 조직화, 기업화, 지능화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험범죄 수사는 보험사기가 고도의 지능성을 토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증거 수집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특별조사팀(SIU)은 조사권이 없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자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점검 및 단속 등이 모두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법 체계도 진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기에는 벅하다.

현행법상 병원의 경우 보험사기로 최종 판결이 내려져도 동일 건물 내 명목만 변경하는 수법으로 재개설이 가능하다.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중이더라도 병원을 폐업하고 명목만 바꿔 다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허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와 법조계의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순간 이익을 위해 전문화 된 보험사기 브로커의 말에 속아 보험범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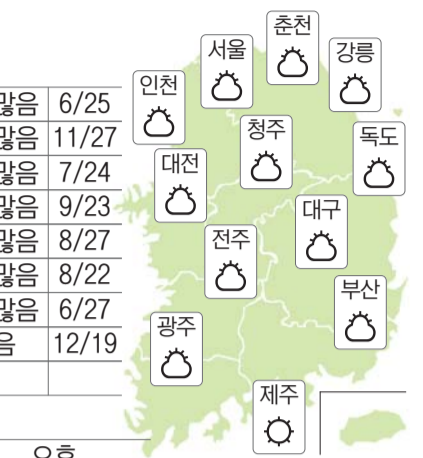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3 | 해질 19:25 | 달뜨기 09:57 | 달지기 --:--

대이론 더위

일교차 크고 안개끼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11/27	보성	구름많음	6/25
목포	구름많음	11/23	순천	구름많음	11/27
여수	구름많음	14/24	영광	구름많음	7/24
나주	구름많음	6/27	진도	구름많음	9/23
완도	구름많음	12/25	전주	구름많음	8/27
구례	구름많음	7/28	군산	구름많음	8/22
강진	구름많음	9/26	남원	구름많음	6/27
해남	구름많음	8/26	축산도	맑음	12/19
장성	구름많음	6/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 생활지수

- 관심
- 매우 높음
-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05	05:57
23:08	17:58	
여수	06:32	00:28
	18:38	12:30

◇ 주간 날씨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3/28	14/28	14/26	14/26	15/24	15/26	15/25

“충장축제에 쓸 청바지 기부받아요”

광주 동구 이달말까지

“충장축제에 쓸 청바지 기부받아요”

광주 동구가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활용될 청바지와 한복을 이달 말까지 기부 받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충장로·금남로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특히 뉴트로(New-tro,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시대에 부응하는 세대 간 공감콘텐츠를 확대하고 최근 대중문화를 반영하는 등 변화된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충장축제 드레스코드인 청바지에 어울리는 도심 조형물, 공연 소품 및 의상, 기념품 제작 등에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청바지와 한복을 기부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동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문화관광과에 청바지·한복을 기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장축제 홈페이지(www.donggu.kr/cjf) 축제소식'란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장롱 속에 안 입는 청바지·한복이 대한민국 대표거리축제의 일부로 멋지게 변신할 수 있는 이번 기부이벤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학벌없는시민사회 “광주 유치원생들 과밀 교실 불편”

광주시내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교육 적정 인원 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2014~2019년) 동안 동결되는 바람에 유치원생과 교사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0~2022년 광주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학급 증설·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만4세(22명)·만5세(25명)·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동신대 '5·18을 생각하다' 교직원 대상 인문학 강좌

동신대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5·18과 관련한 북 콘서트 형식의 인문학 강좌를 연다.

동신대 중앙도서관(관장 남궁협 교수)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중앙도서관 지하 1층 교양강의실에서 '5·18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북 콘서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매학기 한 차례 진행되는 북 콘서트는 인문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 그가 쓴 책이나 인문학 고전을 논

고 강연·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인문학 강좌의 강연자료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나서며, 자신이 쓴 '철학의 현장 : 5·18을 생각하다'를 놓고 동신대 재학생, 교직원과 5·18 정신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상봉 교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지식으로서, 한국 사회의 모순과 비전에 대해 깊은 사유와 통찰력을 제시해 온 철학자로서 평가받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민주노총 “마트 무인계산대 확대, 소비자·노동자 모두에 불이익”

국내 대형마트들이 매장 내 무인셀프 계산대 수를 늘리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는 고객불편, 노동자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심화 등을 유발하는 무인셀프계산대 확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국내의 한 대형마트

는 지난해 3개 점만 도입했던 무인셀프계산대를 이달까지 60여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마트의 일부 매장에서는 무인셀프 계산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계산대를 축소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운영하지 않고 있다.

마트노조는 "소비자들은 원치 않아도 무인셀프계산대를 이용하거나 일반계산대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일부 매장은 일반계산대

로 소비자가 집중되며 계산원의 노동강도가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까지 예상돼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10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셀프계산대 확대 즉각 중단, 노동자들의 인력감축과 강제발령 중단, 업무강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암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신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